

# “철의왕국 운봉가야 발굴·복원”

### 이환주 남원시장, 라디오서 밝혀… “문화도시 지정 신청도 최선”

이환주 남원시장은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운봉가야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잃어버린 운봉가야 왕국을 국가사적으로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7일 전북CBS라디오 ‘생방송 사람과 사람’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운봉가야는 1500여 년 전 운봉고원에서 화려한 철기문화를 꽃피웠다.

이영면 두락마을을 50여기를 비롯해 100여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

2013년 두락마을을 32호분 발굴, 조사에서 금동신발을 비롯한 수 많은 유물이 쏟아져 학계에서는 운봉가야가 고려의 대가야에 버금가는 세력을 형성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운봉가야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문화 연구 지시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시장은 또 “남원시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도시에 지정되면 5년 동안 약 100억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시장은 “남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험을 살려 문화도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문화관광부는 문화도시 지정 신청과

관련된 지침을 6월중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또 “지리산 전기열차는 새 정부와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리산 4계절 관광과 겨울철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취업할당제는 지난해까지 70명이 취업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확인하고, “올해는 15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취약 주거환경, 새뜰마을로 ‘신바람’ 분다

### 순창군, 취약 주거환경 획기적 변화 위해 3개지구 42여억 원 투입

순창군이 풍산 두지지구와 인계 심초지구, 팔덕 율곡지구에 42억여원을 투자해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추진해 농촌마을 주거환경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군은 3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개 지구 가운데 지난 2015년 선정된 풍산두지지구는 공정률이 80%를 넘어서며 주민들이 피부로 사업을 체감하고 있다.

두지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주택정비, 경관시설정비, 마을기반시설정비, 공동이용시설계획, 주민역량강화 분야 등에 총 12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노후

된 주택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고 슬레이트 지붕과 마을 미관을 해치던 빈집들이 없어지면서 마을 경관이 확 바뀌고 있다.

또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마을 안길도 확장되고 주민들이 만드는 연꽃 작은음악회 등 공동체 복원 행사도 성공을 거두면서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군은 올해 11월까지의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2016년 선정된 인계 심초지구는 2018년까지 총 12억4000여만원을 투자해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빈집철거, 상수도시설, 복합문화교류센터신축, 마을당산 숲 정비, 재래식화장실 개량,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생

활·안전·위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세부설계를 마무리 했으며 7월부터는 사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3월 최종 사업을 확정할 팔덕 율곡지구는 2019년까지 3년동안 국비를 포함 총 17억 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해위험 안전도랑 옹벽 및 석축쌓기,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슬레이트 지붕개량, 빈집철거, 마을환경 개선과 달이실 건강교실, 취약계층 공동급식 등 휴먼케어 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11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의회 정례회 개최... 26일까지

제7대 순창군의회(의장 김종섭)가 제225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26일까지 20일의 일정으로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 현안 사업에 대한 조사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운영행정위원회, 산업복지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동의안 등을 처리 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하여 며칠 전의 우박피해 및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위로와 함께 갑작스런 재해 발생에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2017년도 추진 중인 군정현안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실태조사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법·타당성과 사업의 효율성 심사에 세심하게 임하여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

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기자 의원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민간보조사업, 공공기관 대행사업 등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역주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선·시정을 통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할 것을 강력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큰 인기

### 안전·전문성·수준 높은 프로그램 갖춰

안전과 전문성,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임실군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의 꿈과 잠재력을 키우는 활동장으로 각광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운영을 시작한 '임실군청소년수련원'은 섬진강 상류의 맑은 물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국인 관광지 관련 사선대에 자리 잡았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본관을 비롯해 생활관, 체육관, 식당, 강 의실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대 30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동, 작은 도서관 등 문화시설 부터 인공암벽장, 미니골프장, 서바이벌장, 캠프파이어장, 사육비이 크장 등의 데저스포츠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 상담실지 지도사, 레크레이션 등 전문 자격증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지도 아래 오감을 깨우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여가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 전국 341개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2016년 최우수 청소년수련시설'로 선정된 만큼 높은 신뢰도를 자랑한다.

지난해는 148건 총 3만7600여명이 수련원을 찾아 높은 신뢰도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수련 시설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나무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울 상반기 개장되면 수련원을 넘어 종합적인 문화체험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재능을 찾는 청소년활동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다양한 체험활동과 내실 있는 운영프로그램으로 전국 제일의 수련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40명부터 최대 300명까지 비속박, 1박2일, 2박3일 코스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증 받은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의 사항은 임실군청소년수련원 ☎ 644-2526으로 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임실군 내인생글쓰기 강좌 개강

임실군립도서관은 문체부의 ICT(정보통신기술)활용 인문창작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오는 7월 5일까지 '내 인생의 글쓰기' 강좌를 개강한다.

이번 강좌는 오수면 소재 군립도서관에서 매주 수요일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일상 생활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글쓰기 소재를 찾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작성된 토론포와 소통의 장이 열리며 자신만의 글을 모아 내가 사는 이곳, 임실 이야기를 제목으로 문집이 제작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취약아동 학습지도방문

순창군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 중 기초학습 지원이 필요한 아동 5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학습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얻고 있다.

이번 학습지원프로그램은 6월부터 11월 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대교높이 구분 학습 등 학습지사 2곳과 협약을 통해 학습지도 교사가 각 가정을 찾아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미 취약계층 아동 중 학습능력에 낮은 수행 수준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인지 언어분야 학습능력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군은 이를 취약계층 아동 중 학습능력에 낮은 수행 수준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인지 언어분야 학습능력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군은 이를 취약계층 아동 중 학습능력에 낮은 수행 수준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인지 언어분야 학습능력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회계공무원 과실 책임 최소화

순창군이 회계관련 공무원이 종래와 달리 실로 발생할 수 있는 군의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실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재정보증보험의 가입대상자는 160명으로 재무관, 분임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등 회계·지출담당공무원이다.

보증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보증한도액은 본청 재무과, 분임재무관, 지출원 3명은 3억원, 본청 공사, 용역, 물품 계약담당자 등 4명은 1억 5천만원, 직속기관, 사업소 재무관 등 7명은 7천만원, 직속기관, 사업소 지출원 등 17명은 3천만원, 실과 일상 경비 출납원 등 129명은 1천 5백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AI 청정지역 사수 예방 총력

6일 고병원성 시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 전국적으로 확산 될 우려가있다 남원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환주)를 가동하여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본부장(남원시장), 통제관(안전정책감시국장), 담당관(축산과장), 재난안전상황실장(안전재난과장) 및 4개 협업가능별 실무반으로 재난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6일 오후 13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AI는 군산시 소재 농장에서 보 급된 오골계가 주 감염원으로 추정되

고 있고 이에 남원시에서는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 금지조치 및 일시이동중 지명령(Starst)을 발동하는 등 AI의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남원시는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나 도내에서 (군산, 익산) AI 발생에 따라 차단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182농가에서 1,016만7,650 마리의 가금류(닭,오리 등)를 사육, 도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차단을 위한 예방과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